

주일에배	오전(1부) 대방동 7시
	오전(2부) 7시
	오전(3부) 10시
	오후(4부) 3시
	수요일예배 (저녁) 8시30분
서울 교회 02)533-9191	
장소: 강서구 공항대로 376 KBS스포츠월드	



주일에배	오전(1부) 7시
	오전(2부) 10시
	오후(3부) 3시
	저녁예배 7시
	금요일예배 (저녁) 8시
인천 교회 032)763-9191	
장소: 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수중심교회

2019년 8월 11일 (제1015호)

(서울)서울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37호 Tel. 02)533-9191 Fax. 02)592-9191 (인천)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Tel. 032)763-9191 Fax. 032)575-5730 http://www.jcc.tv(철야 주일 예배 위성 및 인터넷 생방송)



동우 컬럼

믿음

나는 요즘 내 40대 때의 사진을 꺼내놓고 기도하고 있다. “하나님, 40대 때의 건강을 주십시오. 이때처럼 힘이 넘치게 해주시고, 이때처럼 육체의 모든 기능을 강건케 하사 주님을 위해 더욱 많은 일을 하게 하소서.” 하며 날마다 기도한다. 분명히, 분명히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갈렙이 그랬던 것처럼 40대의 기력과 건강이 내게 임하리라 믿는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일이 쉬울까, 내 신체를 40대로 회춘시키는 것이 쉬울까? 하나님은 둘 다 가능하고, 둘 다 쉽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이다.

전지전능(全知全能)이란 ‘모르는 것이 없고 못 하는 일이 없다’는 뜻이다.

그런데 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제한을 받으신다. 왜냐하면 믿음이 있노라 하는 자들이 스스로 한계를 긋기 때문이다. 이는 마치 사이드 브레이크를 걸어놓고 차가 안 간다고 하는 것과 같다. 아무리 좋은 자동차라도 사이드 브레이크를 걸어놓으면 제대로 나갈 수 없다. 아무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도 우리가 한계를 그어놓으면 일하실 수 없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의 믿음을 초월하지 않는 분이기에 그렇다.

믿음은 하나님으로 하여금 마음껏 일하게 하는 동력이다.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는 것은 하나님이지만, 그것을 하게 하는 것은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는 겨자씨만한 믿음이다. 홍해를 가르지는 것은 하나님이지만, 그것이 이뤄질 줄 믿고 지팡이를 내미는 것이 믿음이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시는 하나님, 네 입을 크게 열라고 하신 그 하나님을 믿기에 나는 40대 기력을 기대하며 오늘도 간구한다.

쓰지 않으면 녹슬고, 고인 물은 썩는다

8월 5일부터 시작된 하계산상집회, 총회장 목사님은 이 산상집회를 ‘전지훈련’이라고 표현하셨다. ‘전지훈련’이란 자신의 개발과 향상을 위해 환경을 옮겨서 하는 훈련을 말한다. 목사님이 때마다 기도원 집회를 개최하는 것은 예수중심교회 성도들이 훈련을 통해 2군에서 1군으로, 3군에서 1군으로 믿음이 업그레이드 되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셨다.

첫날, 목사님은 ‘쓰지 않으면 녹슬고, 고인 물은 썩는다’는 제목으로 훈련의 시작을 알리셨다.

“제가 운전면허증을 딴 지가 40년이 넘었습니다. 국산 차가 처음 나왔을 때부터 운전은 했으니 지금은 운전에 관한 한 베테랑이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저는 운전을 잘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집사님

저기 고장이 나고 빨리 늙습니다. 머리로 쓰지 않으면 안 돌아가고, 나중에는 치매에 걸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신앙은요? 당연히 신앙에도 녹이 습니다. 기도하던 자가 기도 안 하고, 봉사하던 자가 봉사 안 하고, 찬양하던 자가 찬양 안 하면 신앙에도 녹이 습니다. 성경은 ‘영혼이 잘 되어야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다’고 하셨는데, 영혼이 녹이 스니 범사에도 녹이 슬고, 육체에도 녹이 스는 것입니다. 사업이 잘 안 됩니까? 일이 꼬입니까? 병에 걸렸습니까? 당연한 이치입니다. 이때 사업을 잘 해보려고, 일의 실태를 풀기 전에 신앙의 녹을 먼저 제거해야 합니다. 그러면 잘 돌아가게 됩니다.

물이 고여 있으면 썩지요? 그러면 썩은 냄새가 진동하고, 그곳에 살던 생물체들

야 합니다.

그 방법은 하나님 앞에 우는 겁니다. 녹슨 곳에 기름을 치듯, 고인 연못에 깨끗한 물을 새로 주입하듯 울어서 녹슨 것을 제거해야 합니다. 울면서 회개하고, 울면서 강령할 때 녹이 벗겨집니다. ‘뭐 이런 것까지 기도해야 하나?’ 하는 자들, 녹슨 겁니다. 눈물이 마른 자들, 녹슨 겁니다. 성경에는 애통하여 하늘 문을 연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습니다. 천국 열쇠는 땅에서 먼저 풀어야 하늘에서 풀리게 되어있습니다(마18:18). 그런데 그 열쇠를 쓰지 않으면 녹이 슬어 열 수 없습니다. 자주 쓰는 열쇠는 윤이 나지만, 안 쓰면 녹슬어서 안 열립니다. 하늘의 축복, 능력과 은혜를 끌어내지 못하



2019 하계산상집회(8월 5일 ~ 15일, 장성 예루살렘기도원)

들이 운전을 해줘서 운전을 안 했기 때문입니다. 녹이 습 겁니다. 저는 다시 기도원에서 운전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속력은 내지 못하지만 점차 나아질 겁니다. 그렇습니다. 안 쓰면 녹슬게 되어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자동차라도 그대로 차고에 놔두면 부품들이 녹슬어 차가 안 가고요, 연장도 쓰지 않으면 녹슬어 기능을 제대로 못하게 됩니다. 노래하던 사람이, 악기를 연주하던 사람이 오래 쉬면 실력에도 녹이 습니다. 우리의 육체도 예외는 아닙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녹슬어서 여기

은 다 죽어버려 별레만 끼게 됩니다. 신앙이 고여 있으면 썩어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귀신들로 득실거리게 되니 당연히 되는 꼬라지가 없지요. 그래서 녹을 제거해야 합니다. 녹을 제거하지 않으면 정말 폐기처분되기 때문입니다(계3:15-16). 성경은 ‘무던 철 연장 날을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전10:10)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적 치매가 걸리기 전에, 영적 중풍이 걸리기 전에, 내 삶에 귀신만 득실거리기 전에 녹을 제거하고, 고인 물을 흘려보내

는 것은 우리의 열쇠에 녹이 슬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녹을 제거하고 첫사랑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들이 됩시다.”

목사님은 설교 후 통성기도를 시켰다. 많은 성도들이 눈물을 흘리며 녹이 습 자신의 신앙을 회개했다. 녹이 제거되니 목사님이 머리에 손만 대도 병든 자에게서 귀신이 나가고 병이 낫는 역사가 일어났다. 하계산상집회는 다음 주까지다. 기회가 주어졌을 때 잡는 지혜로운 자가 되자.

신묘수 전도사



뜨겁게 기도하여 첫사랑을 회복하였다



성령을 힘입어 더러운 귀신을 쫓아냈다



영혼육이 강건해지는 기도원 하계산상집회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마7:7~11)



각 분야에 세계적인 인물이 되라

‘습관이 운명을 바꾼다(Habits change your life)’는 말이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습관이 당신을 행복하게도 만들고 불행하게도 만들고, 습관이 당신을 건강하게도, 병들게도 할 수 있고, 습관이 당신을 성공으로 이끌 수도 있고, 실패로 이끌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 살 버릇이 여든까지 가기 때문입니다.

습관이 뭐니까? 습관은 익힐 습(習)과 버릇 관(慣)자로, 몸에 익어 무의식 속에서 나오는 행동을 말합니다. 처음에는 의식적으로 행하던 것이 반복, 반복하다 보면 몸에 익어서 무의식 상태에서도 나오는 것을 말합니다. 처음에는 내가 습관을 만들지만, 나중에는 습관이 나를 만들어가니 이 습관의 힘이란 굉장합니다.

그러므로 나쁜 습관이 있다면 지금 버려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버리는 일은 절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몸에 이미 익은 것인지라 나도 모르게 생각보다 습관이 먼저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쁜 습관을 버리는 것은 혁명적인 생각을 가지고 해야 합니다. 어느 사람이 화투 때문에 집도 날리고, 가족도 뿔뿔이 헤어지고 나서야 정신을 차리고 그만해야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쪽 손을 도끼로 찍었습니다. ‘이러면 안하겠지’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팔목에 화투를 낀 채 하고 있더라지 뭐니까? 습관이란 것이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왜 혁명적인 정신이 필요한지 아시겠지요?

습관은 습성을 낳고 습성이 운명을 바꾼다

신라의 명장 김유신 장군은 천관녀라는 기생에 빠져 있었습니다. 당연히 삼국통 일이라는 대업 앞에 천관녀는 걸림돌이었습니다. 그녀와의 관계를 정리해야 한다는 것을 김유신 장군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괴로워 술을 많이 마셨습니다. 그날도 술에 취해 애마에 올랐는데 깨어보니 천관녀의 집 앞이었습니다. 애마도 습관이 되어 당연한 듯 천관녀 집으로 달려간 것입니다. 김유신은 더 이상은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칼을 꺼내 애마의 목을 치고 입산수도하여 대업을 이루게 됩니다. 성경도 말씀하십니다. “만일 네 오른손이 너로 실족케 하거든 찍어 내 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마5:30). 혁명적인 정신을 가지고 네 자신을 개혁하라는 말씀입니다. ‘혁명(革命)’이란 입에 칼을 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가지 않으면 죽음뿐입니다. 그런 야멸찬 각오로 나쁜 습관을 잘라내

야 합니다. 아주 작은 습관, 별거 아닌 습관이 인생을 망칩니다. 5분 늦는 습관,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는 작은 거짓말, ‘나중에 하지’ 하는 게으름, 대충하는 습관... 이런 것들이 당신의 인생을 좀 먹고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짝꿍 연필 하나 가지고 오는 것은 별 것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몇 번 반복되면 습관이 되어 결국 큰 도둑이 되는 것입니다.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되는 꼴 납니다. 언젠가 재벌 사모님이 보석을 훔치다 걸린 사건이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났습니다. 재벌이 돈이 없어서 보석을 훔쳤겠습니까?

남의 것을 훔치던 습관을

이 자기도 모르게 발동해서 그런 수치를 낳은 것입니다.

저도 나쁜 버릇이 있었습니다. 설교할 때 바지 주머니에 손을 넣는 습관이었습니다. 어느 장로님의 지적을 받고서 ‘안 해야지’ 했지만 설교하다 보면 저도 모르게 손이 주머니에 가있었습니다. 그래서 극단의 처방전을 썼습니다. 바지 주머니를 아예 꿰매버렸습니다. 처음에는 습관적으로 주머니 쪽으로 손이 갔지만, 꿰매진 주머니를 인식하는 것이 반복되다 보니 나쁜 습관이 고쳐졌습니다.

여러분,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겨야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센 적은 골리앗이 아닙니다. 나태한 나, 진실하지 못한 나, 무슨 일에도 열렁뿔렁하고 대충하는 나, 운동하지 않는 나, 쉽게 포기하는 나입니다. 그것과 싸워 이겨야 합니다. 그 나쁜 습관은 당신의 미래를 막는 암적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가 아는 나쁜 습관도 있지만, 나도 모르는 나쁜 습관이 있습니다. 책상에 앉거나 바닥에 앉으면 무조건 다리를 떠는 사람이 있습니다. 문제는 그것을 정작

본인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주위 사람들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지구는 지구 안에서는 볼 수 없습니다. 지구 밖으로 나가야 지구를 볼 수 있듯, 나는 나를 모릅니다. 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 가족, 내 친구들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여보, 내 나쁜 습관이 뭐야?” 하고 물어서 아내가 “당신은 다 좋은데 옷을 아무 데나 벗어놓는 습관이 있어요.” 하면 고쳐야 합니다. 괜히 아내에게 “아침에 출근 시간이 촉박해서 그렇지, 당신이 좀 해주면 안 돼? 종일 집에 있으면서 그것도 안 해?” 하며 버럭 성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작은 것이지만 좋은 습관을 갖

도록 합시다. 물론 처음에는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노력이 좋은 습관을 낳습니다. 어느 회사에서

면접자들에게 급히 면접장으로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면접장은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 곳이었습니다. 면접자들은 급한 마음에 신발을 벗고 면접장으로 들어갔는데, 사실 심사는 벗어놓은 신발로 결정되었습니다. 신발을 아무렇게나 벗어놓은 자들은 탈락, 급한 중에도 가지런히 신발을 벗어놓은 자들이 합격했습니다. 작은 습관으로 희비가 엇갈린 것입니다. 신발을 가지런히 벗는 습관, 아침에 일어나면 이불을 개는 습관, 샤워하고 뒷정리는 하고 나오는 습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학력이 있어야, 돈이 있어야 하는 게 아닙니다. 의식적으로 반복하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이 되면 당연한 듯 그 일을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거짓말하지 않으리라’, ‘술 취하지 않으리라’, ‘난폭운전하지 않으리라’, ‘밥을 천천히 먹으리라’, ‘걷는 운동이라도 하리라’, 작지만 좋은 습관들이 당신의 인생을 멋지게, 그

리고 당신의 가족을 행복하게 만들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눅16:10). 그리고 제가 꼭 권하고 싶은 좋은 습관이 있습니다. 바로 기도하는 습관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키고, 기도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일하게 하는 동력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기도를 습관화하셨기에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좇아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좇았더니 그곳에 이르러 저희에게 이르시되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 돌던질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눅22:39~41).

위대한 사람에게는 위대한 습관이 있다

다니엘이 바벨론의 느브갓네살 왕부터 바사의 고레스 왕까지 형통했던 것은 기도의 습관 때문이었습니다(단6:10). 링컨은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조건을 하나도 갖추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대통령이 된 것은 기도의 습관 때문입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기도를 습관화했으며, 그 습관이 배움이 없는 링컨의 운명을 바꿔 백악관의 주인이 되게 한 것입니다. 이 기도의 습관은 대통령이 된 후에도 지속되어 그는 남북전쟁을 승리로 이끌었고, 지금까지 가장 위대한 대통령으로 미국인뿐 아니라 전 세계인의 가슴속에 남아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살전5:17)는 기도를 습관화하라는 말씀입니다. 기도의 부족은 모든 것의 부족이요, 역으로 풍족한 기도는 모든 것이 풍족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잠들기 전에 기도하세요. 아침에 기도로 하나님께 인사를 드리세요. 그 습관이 당신을 세계적인 인물로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습관이 당신의 운명을 바꿉니다. 나쁜 습관을 자르고 좋은 습관을 들이면 당신의 인생이 명품 중의 명품이 될 것입니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와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신28:1). 할렐루야!

하계산상집회

8월 12일(월)~15일(목)

예수중심기도원



총회장 이초석 목사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하는 어린이

2019 서울·인천 연합 어린이 성경캠프(8월 4일 ~ 6일, 인천예수중심교회)

미국인이 역사 이래로 가장 존경하는 에 이브러햄 링컨은 대통령이 된 후 “오늘의 나는 내 손에 성경을 쥐어준 어머니 덕분입니다.”라고 말했다. 링컨의 나이 9살에 그의 어머니는 세상을 떠나면서 어린 링컨의 손에 성경을 쥐어주며 ‘이 한 권의 책이 너를 세계적인 인물로 만들 것’이라고 유언했다. 어머니의 유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링컨을 위대하게 만들었다. 농사 중에 자식 농사가 가장 어렵다. 농부인 부모는 열심히 씨를 뿌리나 예측할 수 없는 것이 자식 농사다. 그러나 하나님은 100% 자식 농사를 망치지 않고, 풍작을 이루는 방법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찌니라”(신6:4~9).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해야 한다. 총회장 목사님은 늘 말씀하신다. 본재의 곡도 어릴 때 잡아야 원하는 대로 잡을 수 있다고. 옛 어른들도 ‘세 살 버릇이 여든 간다’고 했다. 이것이 어린

이 성경캠프가 중요한 이유다. 콩에 물을 주면 물이 다 빠져나가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 콩나물로 자라나듯, 아이들이 그냥 2박 3일 동안 물놀이만 하고 놀다가는 것 같지만, 그 안에서 신앙이 성장하게 된다. 그것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삶의 밑거름이 되어, 평생을 좌우하게 될 것이다. 어린아이들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방언까지 하는 것을 보면 아무리 험하고 악한 세상이라 해도, 아무리 치열한 경쟁시대라고 해도 안도가 되는 것은, 이미 그 아이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이 성공한 삶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이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와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와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네 몸의 소생과 네 토지의 소산과 네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신28:1~6). 이 축복이 어린이 여름성경캠프에 참석한 모든 어린 심령들 가운데 꼭 이루어지기를 기도한다.

신묘수 전도사



:: 주안에서의 삶 ::

하나님의 장막 시리즈 Ⅲ

하나님께서서는 당신의 성막-도시를 에덴동산을 중심으로 전 세계에 세우시고자 했던 계획이 아담의 타락으로 인하여 어그러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세워 그 민족을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광야 시대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성막에 거하셨습니다. 40년 훈련 뒤에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현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서는 제일 처음 성막을 둔 곳이, 훗날에 에브라임 족속이 거할 땅에 있는 실로라는 곳이었습니 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을 축복하시는 것을 들으시고, 그의 족속을 장자로 선택하여 그곳에 당신의 장막을 두시고 당신의 왕국을 세우시고자 하셨습니다. 그러나 에브라임 족속들과 심지어 제사장까지 타락하자, 하나님께서는 법제가 빼앗기는 것을 허락하시고, 당신께서 직접 블레셋의 신상을 부수고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제사장 엘리의 며느리는 그의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영광이 떠나다)’으로 짓고 그 이름대로 결국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게 됩니다(삼상4:21). 비록 에브라

임 땅에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의 시대 시작이 되지만, 그들은 온전히 믿음을 지키지 못하였기에 하나님께서는 에브라임과 실로를 버리시고, 대신 유다 족속인, 믿음의 사람 다윗을 선택하시고 그가 하나님의 장막을 세운 예루살렘을 선택하십니다. 그의 하나님에 대한 열심으로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손대대로 왕권을 유지할 것을 약속하십니다(시89:3~4). 결국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사람이 아무리 축복할지라도 믿음이 없이는 그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대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음지라도 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십니다. 다윗은 전쟁에서 많은 사람의 피를 흘렸기에 그의 손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없었지만 그의 아들 솔로몬이 짓도록 허락이 됩니다. 처음으로 성막(텐트) 대신 하나님의 성전 건물이 거대하고 화려하게 지어집니다. 성전의 기둥 꼭대기는 백합화와 석류모양으로 조각되고 금으로 장식이 됩니다. 즉 에덴동산의 나무

들로 돌린 모습이며, 금은 고귀함, 순수함, 거룩, 밝음, 불변함 등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상징으로, 곧 그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나타냅니다. 예루살렘은 에덴동산과 같이 높은 지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높은 성전-시대에 적합한 모습입니다. 솔로몬 시대에 하나님의 성전이 예루살렘에 지어짐으로, 많은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기 위해 몰려오기 시작하고, 제물만이 아니라 많은 금과 은 등이 모이기 시작하여, 금을 돌 쓰듯이 썼다고 합니다. 많은 인파들이 처음에는 뜨거운 믿음을 갖고 성전을 찾았지만, 그 후대부터는 그들의 믿음도 점차 식어지고, 나중에는 주변 민족들의 유혹으로 이방신들과 우상들까지 섬기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여, 먼 나라 바벨론이 쳐들어와 예루살렘 성전과 도시가 모두 불에 타고 무너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도시가 멸망한 것입니다(586 BC). 이것은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을 세운 시날 땅 근방의 바벨론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의 계획이 또 공격을 받게 된 것과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 부단히 애쓰고 유혹을 물리치지 않으면 믿음이 무너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사단은 호심탐탐 공격할 틈을 노리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의 첫 번째 성전이 붕괴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잠시 예루살렘을 떠나셨지만 그들과 함께하시고 보호하셨습니다. 결국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바벨론의 포로 중에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디에 있던 그들과 함께 하심을 알려주시고 훗날 그 나라를 회복하실 것을 예언하십니다(겔48:35). 그리고 새 예루살렘을 세우실 것이라고 예언하십니다. 그리고 포로에서 귀환 후에도 스가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도시를 완전히 변화시키실 것이며 그곳에 거하실 것을 예언하십니다(슥8:3~8).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이루고자하신 당신의 계획을 결국 이루어가십니다. 예수님을 보내신 후에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계속적으로 보겠습니다.

권문선 선교사

자기 관리를 잘하여 명품인생이 되자

2019 청년대학부 연합수련회(8월 1일 ~ 3일, 장성 예수중심기도원)

중고등부 수련회에 이어 8월 1일부터 2박 3일에 걸쳐 청년대학부 수련회가 장성 예수중심기도원에서 열렸다.

총회장 목사님은 이틀에 걸쳐 '자기 관리를 잘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할 수 있다'는 주제로 열강을 펼치셨다.

"너희는 무슨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왔느냐? 이 기도원에 온 것이 목적이 될 수는 없다. 이곳에서 무엇을 배우느냐가 중요하고, 이 배운 것을 실천하여 생활에 접목해나가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수신제가(修身齊家) 후에 치국평천하(治國平天下)다. 나를 철저히 관리하고 다스린 후에 국가를, 세계를 다스릴 수 있다. 그렇다면 나를 어떻게 다스리고, 나를 어떻게 경영할 것인가? 먼저는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 나라도, 집도 지켜주는 자가 있지만 네 마음만은 네가 지켜야 한다.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자는 성벽이 무너지고 성읍이 없는 것과 같다'고 성경은 말씀하신다(잠25:28). 성벽이 무너지면 위험에 노출되고, 다 도적맞고, 그런 지경에서는 친구도 다 떠나고 만다. 그래서 '무엇보다 마음을 지켜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셨다(잠4:23). 생사화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다 네 마음에 달려있는 것이다. 둘째는 신뢰를 잃으면 안 된다. 신뢰는 상호 간에 믿음을 말하는 것인데, 신뢰란 쌓기는 어렵지만 무너지는 것은 순간이다. 흰콩과 검은콩 각각 한 알씩을 섞는 일은 채 1분도 걸리지 않는다. 그러나 그것을 다시 따로따로 가리는 일은 정말 어렵듯, 아름다리나루가 되기까지는 수십 년, 아니 수백 년이 걸리지만, 그것을 자르는 데는 몇 분 안 걸리듯 말이다. 그래서 늘 신뢰구축에 힘써야 한다. 공든 탑도 계속 공을 들이지 않으면 무너지기 때문이다. 부

디 하나님께 신뢰받고 사람에게 신뢰받는 자가 되라.

셋째, 진실한 자가 되어야 한다. 성경은 계속 '진실로'라고 말씀하신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진실한 분이기 때문이다(히13:8). 거짓은 마귀의 속성이기에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신다. 진실한 삶이 명품인생이라면, 거짓된 인생은 짝퉁인생이라 말할 수 있다. 짝퉁은 언제든 폐기될 수 있다. 그러므로 늘 진실한 자가 돼라. 다시 말하지만, 진실은 오래 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다.

넷째, 부지런해야 한다. 나는 게으른 자가 제일 싫다. '게으름=무책임=악'이기 때문이다. 게으른 자들은 항상 거리에 사자가 있다며 핑계를 댈다. 그런 자와 사업을 하고, 결혼을 하면 앞날이 불 보듯 뻔하다. 그들과 함께 하는 것은 이빨을 초에 담그는 것과 같아서 모두 다 삭아 없어질 것이고, 눈에 연기를 뿜는 것과 같아서 앞을 볼 수 없게 된다(잠10:26). 게을러서 자기 관리도 못하는 자가 어찌 기업을, 국가를 관리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인물이나 학벌을 보기 전에 부지런한 아내, 직원, 친구를 만나야 한다. 부지런히 공부하고, 부지런히 연구하고, 부지런히 일하는 자가 사람을 다스리고 부귀가 그의 것이 된다(잠12:27).

다섯째, 품위와 품격이라는 그릇에 예절이라는 음식을 담아라. 이는 곧 인격관리를 말한다. 인격(人格)이란 사람의 품격을 뜻하는 것으로 말과 행동, 의상과 헤어스타일이 눈으로 보이는 것이 그의 인격이다. 그러므로 상스러운 말, 음란한 말, 지나친 차림새 등을 삼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동하라. 그런 자는 "세상의 빛이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

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마5:14~15)는 말씀을 이루게 된다.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을 세상으로 내보내면서 '뱀처럼 지혜로우라'고 하셨다. 너희들도 세상으로 나가야 한다. 세상은 결코 낙족지 않다. 그러므로 뱀처럼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 능동적으로 일하고, 깨끗하게 살고, 일을 할 때 소리를 내지 말고, 사력을 다해 목적을 향해 질주해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어라.

내 인생은 내가 만드는 작품이다. 명품이 될 것인가. 짝퉁이 될 것인가. 그것은 온전히 너희에게 달려있다. 경영은 관리요, 관리의 점검이니 너희 자신을 항상 점검하라. 세상은 신용불량자라고 하면 빌린 돈을 갚지 못한 자라고 국한하지만, 그것은 결국 '자신을 점검하지 못해 경영에 실패한 자'라고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늘 자신을 점검하여 너희 모두 명품인생이 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끝으로 방언기도를 많이 해라. 방언기도는 하나님과의 직통전화로, 내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다.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된다. 그러므로 늘 방언기도를 습관화하는 자들이 돼라."

목사님은 정말 하나라도 더 가르치시려고 사력을 다하셨고, 청년들은 어미 새가 물어온 먹이를 먹으려고 입을 크게 벌리듯 '아멘'으로 화답했다.

다음은 수련회를 마친 참석자들의 소감을 몇 자 옮겨 적었다.

"부지런함이란 단지 일찍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것임을 목사님께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부지런하여 하나님께 칭찬받는 자녀가 되겠습니다!

(청년부 이주남)

"명품인생이 되기 위해 나를 점검해봐야 한다는 말씀과 선은 부지런함이에요 악은 게으름이란 말씀에, 최고를 추구하기 위해서 자신을 돌아보며 게으른 생각의 나무를 잘라내고 부지런하게 살아야겠다는 목표를 향해 달려가겠습니다. 또한 한계점에 다다랐을 때 기회라 생각하며 임계점을 돌파하여 명품인생이 되겠습니다."

(청년부 김도은)

"짧은 2박 3일 동안 우리를 극강의 다이아몬드로 만드시려는 총회장 목사님의 품격과 품위를 갖춘 명품 제자훈련에 많은 수련생들의 눈빛이 변하고 저녁집회 후 바로 실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청년부 송현혜)

"우리를 목숨처럼 여겨주시고 최선을 다해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부지런히 점검하고 마음을 지켜 명품인생으로 예수님의 선한 영향력을 전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대학부 박수정)

"울타리를 치고 허물 때 울타리를 왜 쳤는지 생각해봐라'고 외치셨던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 안에 들어온 울타리를 내 스스로 허물지 않도록 하나님을 향한 나의 첫사랑을, 또 그 마음을 끝까지 지켜야 한다고 깨달았던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대학부 김기인)

이 수련회를 아름답게 마무리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고, 최선을 다해 깨우침을 주신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신묘수 전도사

jesus7857@gmail.com

